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

김영준<sup>1</sup>, 김희교<sup>2</sup>, 오경석<sup>3\*</sup>

<sup>1</sup>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sup>2</sup>건축과, <sup>3</sup>화공환경과

## System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Underachieved Students

Young-Jun Kim<sup>1</sup>, Hee-Kyo Kim<sup>2</sup>, Kyeong-seok Oh<sup>3\*</sup>

<sup>1</sup>Depart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sup>2</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sup>3</sup>Department of Chemical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Inha Technical College

요 약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마다 정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에서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더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중도탈락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았던 반면, 중도탈락을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면이 있다. I-대학에서는 학업준비가 부족하고 소외된 부류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소외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른 목적의 프로그램과도 연계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학령인구 감소, 중도탈락, 소외 학생, 성적향상, 중도탈락 방지 프로그램 개발

**Abstract** With decreasing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it is vital for each college to maintain its enrollment number as well as to preserve its dropout rate in a lower level. It is true that all universities and colleges have experienced inevitable dropouts that were in fact more serious in 2 to 3-year colleges. There have been prior studie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ed to students' dropout in various ways. However, no specific programs were employed to mitigate the rates of dropout. In this study, new encouraging program is introduced for the students who were not ready to study and isolated from classroom.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gram led to the GPA enhancement in larger number of participants. Nevertheless,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would be unclear unless it combines with other existing programs.

**Key Words** : reduc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dropout, isolated student, GPA improvement, program creation

### 1. 서론

오랜 기간 지속된 인구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뿐 아니라 정원을 유지하려는 대학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1]. 특히, 전문대학은 고교졸업생이 약 30% 감소되는 기간 동안 정원을 채우기가 점차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4년제에 대한 선호도가 전문대학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2]. 이것은, 전문대학에 들어왔

더라도 4년제로 학생 이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학령인구가 낮아짐에 따라, 지금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쟁력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3]. 또한, 학업준비가 덜 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4], 전문대학의 중도탈락률은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려진 바에는, 4년제에 비하여 전문대학이 높

\*Corresponding Author: Kyeong-seok Oh(kyeongseok.oh@inhac.ac.kr)

Received March 30,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May 30, 2018

Published June 28, 2018

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다[5]. 물론 국내 제일의 서울대학교도 해마다 약 1% 정도의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중도탈락을 바라본 한 중앙지 해석은, 의과대학 혹은 전공을 바꾸어 재수를 선택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6]. 한편, 지방 국립대의 중도탈락률은 약 2%대인 경우가 지배적임을 대학 알리미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전문대학은 상위권 대학에서도 중도탈락률이 5-6%대를 보이고 있다. 즉, 전문대학의 중도탈락률이 현재(2017년 기준), 4년제 대학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왜 학업을 포기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었다 [7-11]. 아래에는 I-대학(I-College)에서 학생들이 중도탈락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나열하였다.

- 성적으로 인하여 아쉽게 전문대학에 왔는데, 4년제로 제도전하고 싶다.
-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후 성적을 확인한 결과, 좀 더 공부하기 쉬운 대학으로 옮기고 싶다.
- 1학년 1학기 상반기에 실시되는 공채 등을 통해서 고졸자격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대학을 다닐 필요성이 없어졌다.
-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본인이 일을 해야 한다.
- 1학년 2학기에 대학입시를 제도전하여 수시로 타 학교에 합격하였기에 자퇴를 희망한다.
- 1학년 학점이 낮아 재수강하려는데, 재수강시 성적인정 최고 학점이 제한되어 있기에 차라리 자퇴 후 새로운 학번으로 다시 학교를 재입학하고 싶다.

한 국가의 관점에서, 중도탈락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큰 손실로 보고 있다.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불된 등록금과 만약 그 시간에 취업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을 말한다[3].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반드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학업 중단이 아닌, 특정 대학의 중도탈락이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재학 중인 학교로서는 아쉽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학생이 선호도가 높은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중도탈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은 중도탈락을 막고자 하는 대학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중도탈락은 궁극적으로는 학령인

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그 대학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2]. 전문대학은 앞으로도 성적이 지금보다 더 낮은 학생들의 입학이 예상되기에,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재학 기간 중 만족도를 높여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14]. 또한, 준비가 덜 된 학생들에게 학업의 동기부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15-17]. 본 논문에서는, I-대학의 중도탈락에 대한 요인들을 정성적인 분류를 시도하여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행하였다. 먼저,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중 복학예정자와 학사경고자를 포함한 성적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도에 걸쳐 시행하였다. 특이하게도,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 중에는 동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고립형 생활태도를 가진 학생이 많았다. 이에 고립형 학생들에게 동료와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존감과 함께 학업지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실시로 인하여 참가한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중도탈락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중도탈락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 2. 본론

### 2.1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중도탈락률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다. 4년제의 경우에는 전공 부적합, 취업 관련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면, 전문대학은 교육기간이 짧기에 중도에 탈락하는 원인으로 취업과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5]. 이전 논문들에서는 중도탈락률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할 때, 개인적인 배경, 대학생활과 연관된 학업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었다[3]. 그러나, 중도탈락 요인들은 학교가 가진 성향, 입학한 학생들 성향,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판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16,17]. 그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좀 더 영향이 있는지, 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곳에서 보고되었다[7,8].

그림1에는 I-대학 사례로서 입학에서 졸업하는 기간 동안 학업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나타내었다. I-대학은 한해에 자퇴생이 평균 600여 명으로 이중에 남학생은 500여명, 여학생 100여명이 된다. 여기서 자퇴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휴학 중 자퇴가 있는가 하면 재학 중 자퇴의 경우도 있다. 자퇴로 인해 제적처리 된 학생 중 매학기 20-30명이 생각을 바꾸어 재입학을 한다. 또한 정원내외를 포함한 재학생 충원율은 100%가 넘지만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약 95%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편입, 전공심화, 산업체 위탁, 그리고 재외국민을 포함한 정원 외 입학자에 대한 노력을 기울려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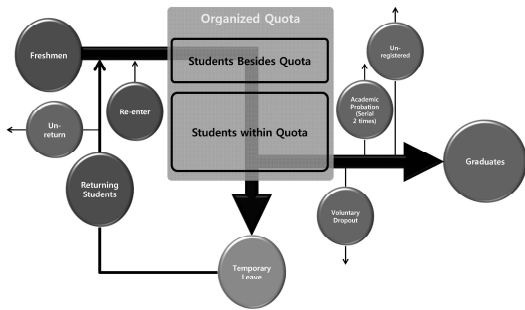


Fig. 1. Schematic diagram presenting overall enrollment to I-College.

대학구조조정 결과로 각 대학들이 입학정원이 감축되었으며, 그 감소된 학생 수 만큼 등록금 손실로 이어졌다. 정원 감소는 대부분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들이다. 그림1에서 휴학생이 재학생 인원에 버금가는 인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학은 크게 일반휴학과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된다. 일반휴학은 온라인으로 할 경우 문제가 되지만, 군 입대 휴학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2-3년제 대학에서는 군 입대 휴학 시 학교에 와서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편의를 위한 온라인 휴학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이 1년 또는 2년 이상 학교를 떠나 있게 되면, 소속감이 결여되어있는 상태에서 복학결정 등 학업지속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만약,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지도교수와 상담을 거친다면 학교가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작은 상담을 통해서도 복학자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 후 복학 준비기간에도 학생들에게 학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 표1에서는 년도 별로 3월과 9월에 자퇴한 학생 수를 제시하였다.

Table 1. Annual dropouts in I-College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arch	61	68	56	48	58	77
September	23	26	36	28	31	32

자퇴를 많이 하는 기간은, 3월말과 9월말이며 이 기간은 학기시작 후 1/4선이 지나는 무렵이다. 이유로는 1/4선부터 자퇴 후 환불되는 등록금의 차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국은 방학 동안에 자퇴 결심을 하고, 그 이전 학기부터 이미 자퇴 고민을 하였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표1을 통해서 학기 초에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2학기에도 자퇴 인원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대학의 자퇴발생은 1학년 공업계열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업계열의 학과수와 학생수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실무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는 면접 전형을 통과하여 입학하기에 자퇴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퇴를 결정하기 이전에 지도교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학기 1/4선이 지나기 전과 새 학기 시작 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사 경고자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며, 해당되는 학생들만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학생을 성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다. 이에 착안하여 학사 경고자와 성적 부진자, 그리고 학업우수자를 아우르는 모임의 장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2회에 걸쳐 캠프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명칭은 골드 푸시업(Gold Push-up) 프로그램이라 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 번의 푸시업을 하게 되면 계속하여 여러 번의 푸시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캠프에서 학생이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이를 경험한 후에는 지속적인 캠프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성적향상까지 그 목표로 두었다. 결과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간의 자

연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성적이 부진한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서로 배우는 윈-윈(win-win) 시스템을 기대하였다.

2.2 맞춤형 프로그램 운용

아래 표2에서는 I-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프로그램 명칭은 그물망 프로그램(Fine-net System)이라 명명하였고,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Table 2. Fine-net System Managed by I-College

Fine-net System	Objects	Participants	Focal Points
Open discussion of late learning students	Students learning late, mainly students with jobs (ages of 30-50s)	13 (2016)	Special scholarship program prepared by authority
Orientation for returning students after military service	Students before returning after military service	75 (2016) 100 (2017)	Providing career counselling information
1 <sup>st</sup> Gold Push-up camp	Students in academic probation state, students under GPA 2.0, students of high academic records, refugees from North Korea	125 (2016), 80 (2017)	Expecting GPA improvement
2 <sup>nd</sup> Gold Push-up camp		105 (2016), 95 (2017)	

그물망 프로그램은 만학도 간담회, 복학생 오리엔테이션, 골드 푸쉬업 1차, 2차 캠프로 구성되었다. 만학도는 30대부터 5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I-대학에 등록된 만학도의 경우, 학교는 오래전부터 장학금 수여해택 등의 학교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학생 오리엔테이션은 군복무를 마친 복학예정자 남학생들로 약 1300여명이 대상자였으며, 이 중에서 약 7.6%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사 경고자에 초점을 맞춘 골드 푸쉬업 캠프를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푸쉬업 캠프 참여 학생은 24개 모든 학과에서 일정 인원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인원을 구성하였고, 성적부진 학생과 성적우수자를 함께 구성한 것이 특이사항

이었다.

아래 표3에서는 I-대학이 2016년과 2017년 진행된 그물망 프로그램 중 복학생 오리엔테이션과 골드 푸쉬업 1, 2차 캠프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복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고, 학습방안, 장학 제도, 성적향상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약 75%로 나왔으며, 다음 차수 진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천의사를 표시하였다.

Table 3. Contents and notes of I-College Programs for returning students and underachieved students

Fine-net System	Contents	Notes
Open discussion of late learning students	Guide for academic calendar/ scholarship program/ academic plans/ enrollment, Lecture for career design and job planning, GPA management	higher than 75% participants were satisfied and recommended this program for future participants
1 <sup>st</sup> Gold Push-up camp	Lecture career design/ job planning, action learning	on campus(2016), off campus(2017)
2 <sup>nd</sup> Gold Push-up camp	Personal counselling, Special lecture customized for 4-type career plan	Significant growth of self-esteem level

골드 푸쉬업 1차 캠프에서는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특강위주로 구성되었다. 반면, 골드 푸쉬업 2차 캠프에서는 참가학생별로 1:1 상담이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내적,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16]. 내적요인으로는 인지적 능력, 정서 문제, 공부 방법, 시간 관리, 주의집중을 들 수 있으며, 외적요인으로는 환경문제와 대인관계를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전하여 낮은 노력과 높은 불안감을 갖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18]. 이렇게 진행된 낮은 자존감의 결과는 학업성적이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는 낮은 목표 설정을 통한 작은 성공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11,15].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홍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선행된 프로그램이 아니었기에 학생들이 프로그

램 참여를 주저하였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뚜렷한 장점을 알지 못하였기에,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목표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과 교수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표와 프로그램 간에 일부 겹치는 부분에서는 수업에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상의 애로점이 발생하였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교수들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보다는 교수와 학과 조교들을 설득하는 것이 프로그램 성공 여부와 관련이 매우 밀접하다. 학과 교수설명회와 조교대상의 설명회 그리고 참여 후보 학생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꾸준히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응원의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프로그램 특강에 초청할 강사는 직접 실무 담당자들의 검증을 통해 선택하였다. 그래서 프로그램 특강에 초청된 강사는 프로그램 목표의식에 맞추어진 특강 교안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성적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 간의 소통을 유도하였다. 그림2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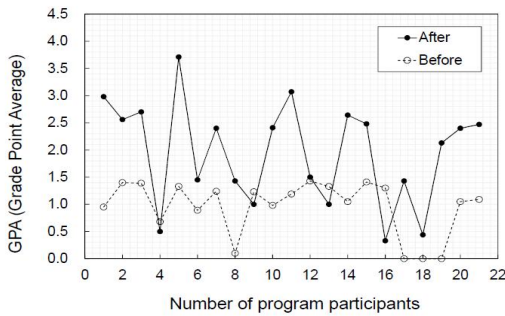


Fig. 2. GPA changes before and after program participation

I-대학의 성적은 4.5 만점 기준으로 부여되며, 프로그램 참가한 21명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기록하였다. 참가하기 전보다 성적이 향상한 학생수가 17명, 성적이 낮아진 경우가 4명이었다. 푸쉬업 캠프가 학생들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해석을 위해서는, I-대학의 성적시스템의 소개가 필요하다. I-대학은 A와 B 학점을 받게 되는 학생은 수강학생 중 7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위 30% 학생들은 C학점 혹은 그 이하의 학점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A와 B학점은 최대치가 각각 35% 미만, 그리고 70% 미만으로 되어 있다. 등급별 학점은 +, 0 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A 학점을 예로 들면, A+와 A0 학점으로 나뉜다. 단 +학점과 0학점의 비율에 대해서는 교수자 재량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리될 경우, C 학점이하로 받는 학생이 무려 30%이상 나올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모든 교과목을 C+를 받게 된다면, GPA는 2.5가 될 것이다. I-대학에서는 교수자마다 다르고 또한 학과마다 다르게 관리되기에 통일된 기준은 없다. 그런데, 출석을 모두 한 경우에는 가능한 C0 이상의 학점이 부여되고 있다. 즉, 학사경고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서 학과 수업에 모두 참여했을 경우에는 2.0에서 2.5사이의 학점은 최소한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석한 학생이 수업태도의 변화로 매시간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 학생은 학점이 2.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2의 결과로, 2.0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은 12명임을 알 수 있었다. 성적이 향상된 17명 중 12명이 태도의 변화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5명의 경우는 성적이 오르긴 하였으나, 여전히 태도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2명 중 12명이 향상된 결과가 중도탈락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가정하면,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4에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I-대학의 학생충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 외 입학생들로 인하여, 매년 약 11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로 계산된 값은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2013년부터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대학에서 개발된 그물망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다소 회복되었다고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하락세를 막고 약간의 상승 분위기를 마련한 것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Table 4. Annual enrollment data

Year	Registered capacity (A)	Enrollment within capacity (C)	Enrollment beyond capacity	Subsum (B)	Overall enrollment rate (B/A) X 100	Enrollment rate within registered capacity (C/A) X 100
2013	6,192	5,989	986	6,975	112.65	96.72
2014	6,192	6,006	990	6,996	112.98	97.00
2015	6,192	5,854	989	6,843	110.51	94.54
2016	6,049	5,657	959	6,616	109.37	93.52
2017	5,845	5,484	986	6,470	110.69	93.82

### 3. 고찰

앞서, I-대학에서 군입대 휴학 후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휴학기간에도 학생들에게 안내와 함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비록, 참가 인원의 숫자는 미미하였으나 참가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 입대 휴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안내 메시지와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계속 갖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표5는 휴학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1일까지의 I-대학 입대휴학 현황이다. 평균적으로 36%비율로 입대휴학을 하며, 그 중에서 평균 6.3%가 제적생이 된다. 여기서 군 휴학이란 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일반휴학은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학교의 허락을 받고 학업을 잠시 쉬는 것이다. 제적은 학생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Table 5. Temporary leave, unregistered, unreturned, and dropout

Year	Total temporary leave (A)	Military service during temporary leave	Leave for military service	Subsum (B)	Ratio(%) (B/A*100)	Dropout	Ratio(%) (C/B*100)
2012	4413	1061	652	1713	38.82	263	15.35
2013	4327	1017	464	1481	34.23	170	11.48
2014	4251	1076	475	1551	36.49	108	6.96
2015	4405	1108	443	1551	35.21	27	1.74
2016	4318	1198	518	1716	39.74	10	0.58
2017	3218	640	531	1171	36.39	3	0.26
Total	24932	6100	3083	9183	36.83	581	6.33

이제는 중도탈락이라는 것이 학생의 학업 중단을 의미한 것 보다는 “우리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어 한다”로 인식해야 하는 시기이다. 학교에서 중도탈락에 대한 원인분석에만 매달린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중도탈락률을 제어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입학전형 최종등록율과 정원 내 신입생 경쟁률이 높을수록 중도 탈락률은 낮으며, 기숙사 수용이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일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중도탈락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다음은 I-대학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진행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중도탈락 방지 안으로 등록금 분납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여 기존의 등록금 분납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학교지원의 사각지대의 학생을 돕기 위하여 학과별로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을

마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학과에서 추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학과별 반대표 장학금을 통해 세부 조직단위로 움직이는 실질적인 학생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재학생 충원을 향상방안으로 학사 경고자의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력 향상으로 그물망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생지도 및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으로 학생 상담 및 지도 활동을 체계화 하였다. 자체적으로 첫 학기 적응을 위해서 1:1 대면 관리 및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과별 취업률 향상대책을 경례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후배로 구성된 튜터-튜티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도 일종의 성적향상 프로그램이며, 그물망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소외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참여를 위한 홍보에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1:1 접근을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6에서는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Table 6. Suggestive action plans for itemized students

Student condition	Unregistered after temporary leave	Temporary leave	Unregistered	Academic probation	Potential dropout
Reason	No answers	Economic state, military service, employed	Economic state	Mismatched major	Mismatched major, employed
Schools' Customized action planning	Informing registry using phone message	Informing the procedure to temporary leave	Informing registry	Program to encourage underachieved students	Special scholarship (2016, 2017)
	Informing registry using school homepage	Informing the changes in student contact info	Informing registry using school homepage	Operating school Program (So-called Mesh Program)	School mileage-based scholarship (2016, 2017)
	Informing registry by mail	Informing diverse scholarship opportunities, monthly-based tuition program	Extended registry, monthly-based tuition program, Dept. chair scholarship	Mentoring and tutoring program, student counselling, student voice monitoring through school homepage	No applications are acceptable for temporary leave during student's first semester

#### 4. 결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마다 정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에서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더 많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중도탈락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았던 반면, 중도탈락을 막아보려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면이 있다. I-대학에서는 3가지 분류 성적 대상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세부 프로그램으로 오랜 기간 학교를 떠나 있어서 학교적응에 불안이 있을 군 입대 휴학생들에게 진로와 학교적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학 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두 번째 세부 프로그램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적이 부진하거나 아주 낮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의 성향은 고립되어 생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에 이들에게는 특별히 사회성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회성과 함께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대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모든 학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시하였다. 이유로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른 목적의 프로그램과도 연계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S.J. Ban, Y.J. Cho, M.J. Park, H.S. Shin, M.S. Rh & Y.S. Kim. (2013).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Restructuring according to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0(4), 189-211.
- [2] Y.K. Lee & K. Lee. (2010). Research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Korea's Junior Colleg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 69-90.
- [3] J.Y. Chung, M.S. Sun, and M.J. Jeong. (2015).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on College Dropout Rat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4), 57-76.
- [4] B.R. Youn & H.W. Jang. (2015). Temporal Aspects and Determinants of College Student Depart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1), 129-155.
- [5] S.Y. Kim. (2012).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 Dropouts' Mobility Paths and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3), 131-163.
- [6] Y.J. Moon. (2018. 3.21.). Medical Schools are always more Favorable than Korean SKY University, Record High in College Dropout, *Money Today*.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114144286833&type=1>
- [7] S.H. Kang. (2010).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ropout Th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3(1), 29-53.
- [8] S.Y. Kim. (2006). A Study on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out of Korean Universities and Colleges'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3(4), 33-62.
- [9] Y.M. Kim & H.K. Yu. (2012). Study on the Effect of Counseling Program on the Adaptability Improvement of High-Risk Group Students: Especially ove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1), 215-230.
- [10] H.W. Lee. (2014). *Analysis of Factors Concerning University Students Drop-out*. Master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nam.
- [11] V. Tinto.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 [12] M. Balduf. (2009). Under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20(2), 274-294.
- [13] U.S. Lee & S.H. Lim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echnology Improvem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Korea Polytechnics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8(3), 237-243.
- [14] H.S. Woo, M.R. Yeom, D.Y. Jung. (2016). An Analysis on the UCC Media for STEAM Integrate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7(1), 43-48.
- [15] O. Chukwu-Etu. (2009). Underachieving Learners: Can they learn it all?. *ARECLS*, 6, 84-102.
- [16] J. Whitehead. (1984). Motives for Higher Education: A Study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Relation to Academic Attainment.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14(2), 26-34.]
- [17] K.S. Choi & Y.C. Lee. (2013). Measurements to Reduce

Students' Withdrawal Rate: A Case Study on College D.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1),  
979-987.

- [18] M. Kim & D.G. Lee. (2008).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Approval.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3), 289-304.

김 영 준(Kim, Young Jun)

[정회원]



- 1986년 2월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 2001년 2월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 1996년 3월 ~2001년9월 :대전과학기술대학 정보시스템계열 교수
- 2001년 9월 ~ 현재 :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김 희 교(Kim, Hee Kyo)

[정회원]



- 1988년 2월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공학사)
- 2013년 2월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박사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 관심분야 : 건축계획, 건축설계
- E-Mail : hkkim@inhac.ac.kr

오 경 석(Oh, Kyeongseok)

[정회원]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공학사)
- 2004년 8월 : 유타대학교 화학공학과(공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인하공업전문대학 화공환경과 교수
- 관심분야 : 소재, 분석
- E-Mail : kyeongseok.oh@inhac.ac.kr